날씨 스트레스

긴 장마·폭우·폭염에 달걀생산 줄고
우유 공급 차질 전복도 태풍에 부족

高물가 부채질

15일 광주시 서구 이마트 상무점 계란매장에서 한 직원이 계란을 정리하고 있다. 계란값은 잇단 폭우와 폭염으로 산란계의 '날씨 스트레스'가 가중되면서 지난 5월에 비해 10% 이상 올랐다. 〈이마트 상무점 제공〉

날씨마저 고물가를 부채질하고 있다.

긴 장마에 폭우와 폭염, 최근 제9호 태풍 '무이파' 피해 등 변덕스런 날씨로 인해 가축의 스트레스가 늘어나고 양식장 피해가 커지면서 생필품 계란부터 추석선물용 전복까지 가격이 치솟고 있다.

15일 완도군에 따르면 이른 추석을 앞두고 전복 수요가 늘면서 8마리 든 '대복' 한 상자 가격이 7만원, 12마리 '중복'이 5만5000원으로 지난해보다 30% 가량 가격이 올랐다. 전국 전복 수요의 81%를 생산하는 완도지역은 3878어가가 매년 3500t의 전복을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태풍 '무이파'로 입은 피해만 260억원 규모로 추산되면서 출하를 앞둔 다량의 전복이 바다에 묻혀 공급가격이 뛰었다.

실제 15일 광주 이마트 상무점에서 전복 중 가장 인기가 좋은 16~18미 구성의 1kg 가격은 4만2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구성일 때 가격 3만9000원보다 3000원가량 올랐다. 수요가 몰리는 추석선물용 세트 가격은 아직 가격 확정도 못한 상황이다. 태풍 피해로 전복 출하량이 변동함에 따라 선물용으로 인기 높은 중복 이상의 전복 가격을 어느 선에서 맞춰야할지 가늠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전국을 휩쓴 잇단 폭우와 폭염도 가축들의 생태 여건을 불리하게 만들면서 계란과 우유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젖소는 산유량이 급감했고, 암탉은 계란생산이 줄어 수급불안을 야기했다. 이마트 광천점에서 팔리는 대표적 계란상품 '알찬란'(30구)은 지난 5월 가격이 4890원이었지만 7월엔 5100원으로, 최근엔 5480원까지 올랐다. 이처럼 계란값이 오른 것은 일차적으로 지난 봄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150만마리 이상의 산란계(産卵鷄)가 도축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올 여름 악천후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날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입맛이 떨어진 산란계가 사료섭취를 꺼려 낳는 계란의 껍질이 얇아졌고, 결국 세균에 잘 감염되고 운송 시 파손 비율이 높은 계란이 생산된 것이다.

유가공업계도 날씨 스트레스를 받은 젖소들의 산유량이 감소하면서 원유 공급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구제역으로 젖소들이 살처분된 상황에서 계절영향까지 겹쳐 평년보다 원유 공급량이 20% 이상 줄었다. 최근 낙농가들이 공격적인 원유가격 협상을 계속 벌이는 것도 사료값은 급등했는데 생산량은 떨어져 경제적 어려움이 커진 탓이기도 하다. 유가공업체와 낙농육우협회의 원유가격 인상 협상은 아직 진행중이지만 결국 가격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마트 관계자는 "폭우와 폭염 등 날씨로 인해 닭의 폐사율이 높아지고, 계란 수급 상황이 평년보다 악화되면서 가격상승이 자연스레 이어졌다"며 "우유 가격도 협상이 타결되는 데로 인상이 뻔해 결국 날씨로 인한 경제성 악화가 소비자 가격을 상승시킨 셈"이라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우리금융 매각 불확실성 증폭

주가 급락 입찰 중단 가능성…'헐값 매각' 논란 부담
2개 이상 예비입찰참여 심사통과시 유효경쟁 성립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를 위한 주변 환경이 더 나빠지고 있다. 최근 주가가 크게 떨어지면서 유찰이나 입찰 과정 중단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정부로서는 론스타와 같은 사모펀드(PEF)가 대형 금융지주사를 인수하려 한다는 부정적 여론이 비등한 상황에서 주가 폭락으로 헐값 매각 논란의 짐까지 떠안게 됐다.

정부는 애초 우리금융 지분 매각을 추진하면서 내세웠던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조기 민영화 ▲국내 금융산업 발전 등 3가지 목표 중 가장 중요한 공적자금 회수극대화를 달성할 수 없는 상황에 부닥치게 됐다. 조기 민영화는 일찌감치 물 건너갔고 입찰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이 MBK파트너스, 티스톤파트너스, 보고펀드 등 토종 사모펀드 3곳에 그쳐 국내 금융산업 발전이라는 과제 달성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그러나 이런 논란에도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라는 목표에 방점을 두고 민영화를 추진해왔지만 최근 주가가 급격히 내려가면서 이제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을 맞았다.

정부(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금융 지분은 56.97%(4억5919만8609주)이다. 이 중 30% 이상을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얹어 판다는 계획이다. 정부 보유지분 56.97% 가운데 30%를 매각할 경우 1일 종가 1만4250원으로 환산하면 3조4457억원에 달하지만 12일 종가 1만1300원 기준으로 하면 2조7324억원으로 감소한다.

9거래일 만에 회수할 수 있는 공적자금이 7133억원이 줄어드는 셈이다. 물론, 오는 17일 예비입찰제안서를 접수하고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심사 과정을 거치는 동안 주가는 다시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세계 경기를 바라보는 시선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또 하반기 우리금융의 주가 전망도 좋지만은 않다. 정부가 가계부채를 우려해 은행들에 대해 가계대출을 규제하고 있어 성장 둔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부실채권 매각·상각 과정에서 추가 충당금 부담도 있다.

헐값 매각 논란이 불거져 정부가 인수 과정을 중단하지 않을지 인수전에 참여 당사자조차 우려하는 상황이다.

또 사모펀드로서는 인수자금이 줄어 반가운 일이지만 세계 경기 불황으로 그만큼 자금 조달도 어려워져 예비입찰에 참가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특히 보고펀드는 한국금융지주에 컨소시엄 일원으로 참여해 달라고 제의했다가 거절당하면서 예비입찰 불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보고펀드가 참여하지 않아도 MBK파트너스와 티스톤파트너스가 여전히 우리금융 인수 의사를 밝히고 있어 유효경쟁이 성립할 수는 있다. 일단 2곳 이상이 예비입찰에 참여하고 2곳이 심사를 통과해야 유효경쟁이 성립된다.

그러나 모두가 정부의 부담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예 유찰되거나 심사 과정에서 2곳이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모펀드가 금융회사를 인수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아직 그대로여서 이런 유효경쟁 불성립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연합뉴스

"올 추석 선물은 지역 특산품 어때요"

유통업계, 농수산물 선물세트 선보여

이른 추석(9월 12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아 주요 백화점들이 추석 선물세트 예약에 들어간 가운데 다양하고 풍성한 신선식품 선물세트를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15일 지역 유통업계에 따르면 광주신세계 백화점은 광주·전남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품을 이용한 가지각색의 선물세트를 선보였다. 최고의 조기를 골라 구성한 '알배기 왕특대 굴비'(2.5kg, 5미)는 최고의 품질답게 가격도 120만원에 이른다. 지역에서 잡은 자연산 생선으로 만든 '전감 세트'(참도미살 600g·민어살 600g·광어살 600g)는 20만원이다.

제주 가파도에서 출하된 '특전복'(1개당 300g 이상 10~15미)은 80만원, 자연산 '독도 꽃새우'(꽃새우 1.2kg(26~28미·물렁가시 붉은 새우)는 15만원, 제주산 '탐라도 왕갈치'(특대 3.7kg 5미)는 35만원, 자연산 송이를 넣은 '고추장 굴비'(400g 2입)은 28만원 등이다.

롯데백화점 광주점도 지역 특산물을 최대한 이용해 선물세트를 꾸렸다. 짜릿하고 알싸한 맛이 일품인 흑산도산 '홍어세트'(시세기준)와 전통방법으로 재배한 '명품 무등산 수박세트'(시세기준), 신안의 청정바다 자연섬에서 옛 방식으로 길러낸 '김 세트'(8만원), 친환경 순환농법으로 재배한 청보리 사료로 건강하게 키운 고품질 '참예우 한우세트'(26·34·59만원), 캐나다산 '탑스터 세트'(40만원), 등이 마련됐다.

현대백화점 광주점은 산삼씨를 밭에 뿌려 직접 재배한 12년산 '산양산삼 명품세트'를 2뿌리 40만원, 3뿌리 60만원, 5뿌리 100만원에 내놓았다.

한편, 소비자들이 추석 때 가장 받고 싶은 선물로는 '갈비세트'가 꼽혔다.

농협유통이 농협하나로클럽 양재점 및 포털사이트 아줌마닷컴 방문자를 상대로 지난 3일부터 9일간 추석과 관련해 설문한 결과, 응답자 3822명 중 11.3%가 가장 받고 싶은 선물로 갈비세트를 선택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수완지구에 '수완 세영리첼' 536세대 분양

세영종합건설이 광주 수완지구에 지하 1층, 지상 17~25층 높이 아파트 9개동 규모의 '수완 세영리첼' 536세대를 분양한다.

'수완 세영리첼'은 전용면적 84.67㎡(32평) 95세대, 84.91㎡(32평) 50세대, 84.98㎡(35평 B형) 312세대, 84.98㎡(35평 B1형) 34세대, 114.49㎡(42평) 45세대등 총 536세대로 구성됐다. 이 아파트 단지는 하남공단과 대로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수완지구 최고의 청정주거지역으로 손꼽히며 단지 옆에 1㎞ 길이의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솔무공원과 풍영정천이 자리잡아 쾌적한 주거환경이 특징이다. 단지 안에도 각종모임을 열 수 있는 중앙광장과 운동시설이 갖춰진 세레나데정원, 주민휴게시설 및 건강산책로 등 여가공간이 잘 조성돼 있다.

또 기존의 아파트와 차별화된 혁신적인 평면설계를 갖춰 기호에 맞게 특별한 공간으로 변신하는 가변형 벽체설계와 특화된 넓은 수납 공간이 장점이다.

분양조건은 계약금 1500만원, 중도금(60%) 전액 무이자로, 초기 자금부담을 완화해 내집마련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조희승 분양소장은 "세영건설은 지난해 전국 건설시공 순위 131위의 건설회사로 전국적으로 1만7000여 세대의 아파트를 공급하고 있는 중견회사"라며 "호남권에서도 군산과 순천 연향, 무안 남악에 이어 수완지구에 또 하나의'주거 명작'을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택전시관은 수완지구 세영리첼 현장에서 19일 문을 연다. 문의(062-655-0533).

〈조감도〉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2011 제주 골프투어 사은행사

태국,필리핀,중국,베트남 전문

이제 제주도/해외 골프여행은 믿을수 있는 골프 전문가 스피드골프와 함께 하시면 편안합니다

8월 28일(일) ~ 8월 29일(월) 1박2일 ★45홀 마지막찬스 ₩369,000

28일 (일)	KE1901 차량	광주 공항 보딩 (신분증 지참) 광주 출발(09:50) → 제주 도착(10:35) 제주 도착 후 기사미팅 제피로스CC 18홀 숙소 투숙 및 자유시간 (숙소 : 부영 골프텔 30평 4인1실)
29일 (월)	차량 KE1912	골프장 이동 부영CC 27홀 공항 이동 제주출발(18:00) → 광주도착(18:45)

※포함 사항 : 항공료, 그린피 45홀, 숙소, 수송차량, ★유가할증료
※불포함사항 : 식사, 전동카, 캐디피, 기사팁

8월 29일 ~ 10월 28일 까지 주중 1박2일 ★36홀

1. 해비치 리조트 32평(4인1실) 36홀
해비치CC 18홀 + 해비치CC 18홀 ₩309,000
2. 에버리스 골프텔 54평(4인1실) 45홀
한라산CC 18홀 + 에버리스CC 27홀 ₩369,000
3. 네이버후드 호텔 (2인1실) 36홀
제피로스CC 18홀 + 세인트포CC 18홀 ₩389,000

공통 포함 사항 : 항공료,그린피, 숙소, 수송차량.
공통불포함 사항 : 식사, 전동카, 캐디팁,기사팁, ★유가할증료
※ 10월 31일까지 주중 출발요금입니다. 주말출발요금 별도 문의!!
1조이상 출발 가능!! 24시간 예약 서비스 가능!! 2박 3일 및 3박 4일 맞춤형 골프투어 가능!!

KOREAN AIR 아시아나항공 최우수 판매대리점 예약센터 (주)투어클럽 & 스피드골프투어 ☎ 062)382-8201, 010-3613-7810